

##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일본기업의 대응

- 일본의 對중국 투자기업들이 중국의 성장둔화와 인건비 상승 등 이중고에 직면, 중국내 생산비율을 낮추거나 일본으로의 유턴을 서두르는 등 생산조정을 가속화
- 특히 중일간 단위노동비용의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일본기업들의 일본 국내 유턴 움직임이 확산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TPP 타결을 계기로 쇠퇴일로에 있는 섬유산업을 재생시키기 위해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

### □ 對중국 투자기업, 중국의 성장둔화와 인건비 상승 등 이중고에 직면

-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의 거점인 중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
- 고베제강소가 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의 증산투자를 결정한 반면, 중국 투자는 연기한데 이어, 대형 캐주얼 의류제조업체인 아다스토리아도 중국내 생산 비율을 90%에서 70%로 낮추기로 결정

### □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생산조정

- 고베제강은 충격 흡수장치인 서스펜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단조부품의 생산능력을 40% 늘리려 했던 당초의 계획을 1년 정도 연기
  - 중국 신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임
- 한편, 신차 시장이 견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는 동일한 부품에 약 70억 엔을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80% 늘림
-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었던 스마트폰도 포화상태에 달해, 관련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
  - 스마트부품의 정밀가공에 사용되는 소형선반제조업체인 쓰가미는 중국에서 월간 1,500대의 생산능력으로 '15년 봄에는 월간 800대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300-400대의 생산에 그침

## □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조정

- 중국시장의 성장둔화 외에도 인건비 상승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
  - 인건비에 노동생산성을 가미한 단위노동비용으로는 일본과 중국간 역전현상도 나타나, 일본기업들의 국내 유턴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음
-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생산비율을 낮추는 움직임도 있음
  - 글로벌 워크 등의 브랜드를 가진 아다스토리아는 향후 5년 내에 중국내 생산비율을 90%에서 70%로 낮추는 대신,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생산비율을 10%에서 30%로 높일 계획임
  - 일본으로의 수송비는 상승하더라도 인건비를 억제함으로써 전체 비용은 10%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함
- 일본 최대 의류업체인 퍼스트리테일링은 과거 90%이상이었던 중국내 생산비율이 이미 60-70%로 저하
- 일본 국내로 생산을 이관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음
  - 다이킨공업은 가정용 에어컨 생산량의 중국내 생산을 전년비 20%에 해당하는 15만대 정도를 줄이는 대신, 일본 내 시가제작소의 생산량을 100만대로 20만대 정도 늘릴 계획임
-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을 확대해온 TDK는 일본과의 인건비 차이가 줄어들에 따라, 인건비가 싼 새로운 지역을 모색하기보다는 일본 국내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전환

## □ 단위노동비용의 중일간 역전

- 중국의 인건비는 연간 10%정도 상승
  - JETRO에 의하면 중국 공원의 평균월급은 베이징이 566달러, 상하이가 474달러로 2,000달러를 약간 넘는 일본보다 크게 낮으나, 생산성도 가미한 단위노동비용으로 비교하면 양상이 바뀌고 있음

- SMBC닛코증권에 의하면, 중일의 달러표시 단위당 비용은 1995년 시점에서는 일본이 중국의 3배였으나, 그 차이가 점차 좁혀져 2013년에는 중일간 역전, 2014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상회

## □ 단위노동비용의 역전 원인


- 아베정부 출범이후 위안화에 대해 약 40% 엔저가 진행된 점도 하나의 배경임
- 특히 노동자의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품일수록 일본에서의 생산이 유리하게 되었다는 지적
- 현재로서는 중일간 노동비용의 재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
- 엔고로 일본의 노동코스트가 상승하더라도 중국의 임금상승 영향이 이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
-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에 의하면, 중국과 역전된 2013년에는 일본의 단위노동비용이 18.7% 하락했는데, 이 중 18.1%분은 엔저에 의한 것
- 그러나 임금상승세가 완만한 일본과 달리, 중국은 인건비의 급등으로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상승
- 엔화의 대미달러가치가 연간 10%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중일간 재역전은 2021년이나 가능

## □ 섬유산업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지원

- 지금까지 봉제산업의 일대 거점이었던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을 배경으로,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중국에 진출해있는 봉제업 관련 기업들이 일본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이에 경제산업성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생산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봉제업에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생산효율을 높이는 보조금제도를 2015년도 중에 마련할 방침

- 나아가 일본 경제산업성은 TPP 타결에 따라 일본 국내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
  - 보조금으로 국내 봉제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외에, 해외수요확보를 위한 사업화조사를 지원
  - 현재 의류의 국내생산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23%에 그치고 있으나 장래 40-50%까지 높일 계획이며, 이를 위해 2015년도 중에 섬유비전(가칭)을 발표할 계획
- 동시에 공급망을 수직 통합하여 해외시장에 일본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화조사도 보조할 계획
- TPP 참가국인 베트남 등 저임금 지역도 이용한 고도의 공급망으로 쇄신해나갈 방침
- 일본의 섬유산업은 화학섬유와 방직, 염색 등의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, 봉제와 소매 등 중·하류공정의 산업이 공동화와 저출산으로 쇠퇴일로에 있음
  - TPP에서는 역내에서 제사에서 봉제에 이르기까지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관세철폐 조건으로 규정
  -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에서는 0.5-32%, 캐나다에서는 6-18%의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## □ 시사점

- 중일간 단위노동비용의 역전된 배경에는 중국의 임금상승과 일본의 엔저 외에도, 그동안 일본기업들이 최신설비 도입과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 등으로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룩했을 가능성이 큼
-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일간 단위노동비용의 역전과 TPP 타결을 계기로 쇠퇴일로에 있는 섬유산업을 재생시키기 위해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려는 것임
- 對중국 진출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, 중국의 생산환경 변화와 TPP 타결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를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일본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전략을 예의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
  - 일본정부의 보조금 등의 지원조치가 WTO 룰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등 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5.12.3/6)